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WORLD OF TOMORROW

가제 : 내일의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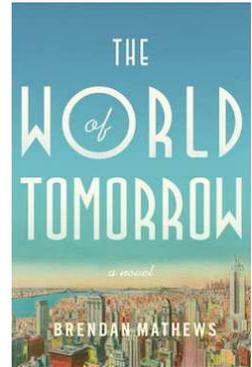
저자 : Brendan Mathews

출판사: Little, Brown & Co.

발행일: 2017년 9월

분량 : -

장르 : 소설/ 문학



- * “묘한 매력을 지닌 데뷔소설. 영리하고, 똑똑하고, 야망이 넘치는 세상을 풍성한 글과 감동으로 그렸다.” – 풀리처 상 수상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Everybody's Fool*』의 작가 리처드 루소
- * “실존하는 듯한 인물들과 설득력 있는 역사적 사실이 생생함을 제공하며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역작” – 펜/말라무드(PEN/Malamud) 상 수상작 『*The New Yorker Stories*』의 작가 앤 비티

1939년, ‘브리타닉’호가 각양각색 손님들을 가득 싣고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했다. 표 등급에 따라 배 위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먹는 음식도 하늘과 땅 차이였다. 화려하게 차려 입은 일등석 손님들이 둘러앉아 만찬을 즐기는 저녁 식탁에는 스코틀랜드 출신 귀족이라는 앵거스라는 남자가 끼어 있었다. 몇 시간 전, 갑판 위에서 갑자기 몰아친 바람에 날아갈 뻔했던 어느 아가씨의 모자를 붙잡아 준 일로 초대를 받아 화려한 중국 도자기가 가득 놓인 식탁 앞에 앉게 된 것이다. 막 에피타이저가 나오고, 앵거스는 어찌된 영문인지 사람들이 자신이 먼저 숟가락을 들기만을 기다린다는 느낌을 받는다. 귀족이라고 했더니 그래야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앵거스는 접시 양 옆에 족히 열 개는 되는 것 같은 포크와 나이프, 숟가락 중에 무엇을 들고 수프를 떠 먹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를 지켜보는 이들 중에 누구도 그의 진짜 이름은 프란시스이고, 불과 10일 전까지만 해도 감방에서 갇혀서 작은 숟가락 하나로 모든 음식을 먹었고, 온갖 작전과 뇌물로 겨우 이 배에 올라 미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건 알 턱이 없었다. 정말로 영국의 귀족인 줄만 알고 신기함과 존경스러움이 섞인 눈을 반짝이며 프란시스를 바라보는 미국인들, 곧 뉴욕에서 개최될 세계박람회를 보기 위해 배에 오른 유럽 사람들에게 그는 동생이 사냥을 하다가 크게 다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에 데려가

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완전히 거짓말은 아닌 것이, 브리타닉 호의 다른 곳에서 턱시도를 입고 말쑥하게 차려 입은 다른 청년들에게 둘러싸인 동생 마이클은 실제로 많이 다쳤었다. 그러나 마이클 역시 10일 전까지만 해도 신학대학에 ‘간혀’ 곧 다른 나라로 선교활동을 떠날 참이었다. 수립된 지 얼마 안 된 아일랜드 공화국에서, 프란시스는 불손한 책과 물건을 사람들에게 배포했다는 혐의로 정치범이 되어 감옥에 갇힌 신세였고 마이클은 전 세계의 우울한 나라들을 돌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계획이었지만 이렇게 이름도, 신분도 모두 속이고 유람선 일등석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귀족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장례식 날 벌어진 충격적인 사고로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두 사람은 몇 년 전 미국으로 이민간 형을 찾기 위해 이 배에 올랐다.

이야기는 두 번째 세계대전이 불과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온 1939년 6월, 일주일간 미국으로 건너간 두 아일랜드 형제를 쫓아간다. 사고로 귀도 멀고 말도 할 수 없게 된 동생을 데리고 뉴욕으로 건너간 프란시스는 브롱크스에서 산다고만 알고 있는 재즈 뮤지션, 형 마틴을 찾아가려고 하지만 뜻밖의 인물이 끼어들면서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한다. 톰 그로닌이라는 은퇴한 광패가 두 사람을 협박하며 뒤를 밟고,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을 모두 없애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이다. 초대형 박람회 앞둔 뉴욕은 행사 슬로건처럼 평화롭고 더욱 풍요로운 “내일의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여들며 흥겨운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는데 영국에서 조지 왕과 엘리자베스 여왕이 미국 땅을 처음 밟는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온 나라가 들썩인다. 이 엄청난 행사와, 비밀을 숨긴 프란시스 형제의 위태로운 여행이 서로 겹치며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 시작된다. 피와 사랑, 기회로 서로 거미줄처럼 엉킨 사기꾼, 정치인, 예술가, 음악가, 광패, 그리고 권력자의 정부가 여기저기서 엉키고 각자가 놓지 못한 과거의 일들이 되살아난다.

전쟁이 코앞에 온 줄도 모르고 희망에 부풀어 있는 뉴욕을 무대로 독특한 인물들과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가 마음을 사로잡는 흥미진진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브랜든 매튜스(Brendan Mathews)는 아일랜드에서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이어 매사추세츠 문화위원회 장학생으로 선정됐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 바드 칼리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2011년 ‘플래너리 오코너 단편소설 상’ 최종 후보에 올랐고 「Best American Short Stories」, 「Cincinnati Review」, 「Glimmer Train」, 「Virginia Quarterly Review」 등 영국과 미국의 여러 간행물에 작품이 소개됐다. 단편 모음집 『LEAVETAKINGS』도 출간될 예정이다.

제목 : THE LOVED ONES
가제 : 사랑하는 이
저자 : Sonya Chung
출판사: Relegation Books
발행일: 2016년 10월 18일
분량 : 280 페이지
장르 : 소설/ 문학



- * 커커스 리뷰 선정 **'2016 최고의 소설'** 목록에 포함, 나일론(*Nylon*), 버스틀(*Bustle*), 인디 넥스트 픽(*Indie Next Pick*)의 '이달의 도서'로 선정
- * **"복잡한 등장인물들과 반전이 가득한 책. 억눌린 관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드라마를 능수능란하게 포착할 줄 아는 작가의 솜씨가 돋보인다."** - 「북리스트」
- * **가족의 이야기, 되돌아보는 인종 문제를 힘 들이지 않고도 우아하게 그린다.** - 「라이브러리 저널」

찰스 프리데릭 더글러스 리는 집 현관에 찾아온 베이비시터와 마주섰다. 아내 앨리스가 내내 집에서 아이들만 보다가 운 좋게 일자리를 얻은 덕분에, 여섯 살짜리 아들 베니와 아홉 살짜리 딸 베다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다. 사실 찰스는 낯선 사람이 부모 대신 아이를 돌보는 것이 영 탐탁지 않았다. 베다가 벌써 아홉 살인데다 영민한 아이라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로 충분히 도움을 청할 수 있을 텐데, 앨리스는 마음을 놓지 못했다. 찰스가 완전히 동의하기도 전에 벌써 새 일터인 요양원에서 만난 어느 간호사의 소개로 후보까지 구해놓은 상황이었다. 한국인 여학생인데 이름이 한나 리라고, 우리와 성이 똑같다고 즐거워하기까지 했다. 그리하여 1984년 여름의 어느 토요일 오후, 발랄한 젤리 슬리퍼를 신고 머리를 길게 늘어드린 한나가 찰스의 대문 앞에 나타난 것이다. 찰스는 생각보다 성숙해 보이는 한나의 외모에 먼저 놀라고, 그 동안 앨리스의 친구나 가족들의 눈빛에 솔하게 떠오르던 기색이 한나에게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놀랐다. "이 사람 흑인이구나, 정말 새카말네."라고 눈으로 말하던 사람들. 사뭇 놀라면서도 놀란 척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눈빛. 한나는 그런 기색은 전혀 없이 예의 바르게 자신을 소개했다. 찰스는 한나와 미리 통화를 해본 앨리스가 아주 완벽한 아이 같다고 왜 그토록 칭찬했는지 그제야 오롯이 이해할 수 있었다. 처음 마주한 순간부터 찰스는 한나가 마음에 들었다.

찰스가 앨리스와 만난 건 한국에 군인으로 주둔했을 때였다.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무난히 다닐 수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걸 마다하고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에 와 있던 앨리스와는 한국의 어느 클럽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급속히 가까워졌고 곧 앨리스의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 어릴 적, 아버지가 자신과 엄마, 누나들에게 안겨준 상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찰스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철칙이 있었기에 곧바로 앨리스와 가정을 꾸리기로 마음 먹었다. 물론 결혼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부부는 미국에 돌아와 어여쁜 두 아이들을 키우며 잘 살아왔다. 이제 앨

리스가 다시 사회로 나가면서, 이 작은 가족에게도 변화가 찾아온 것이다. 그 변화의 시작은 겨우 열세 살이지만 나이보다 한참 철이 들어 보이는 한나의 등장이었다.

한나와 찰스 사이에는 마치 처음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 끈끈한 관계가 형성된다. 서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바라는지 꿰뚫듯 들여다볼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이다. 한나는 자신이 찰스를 왜 그토록 주의 깊게 살피게 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런 시간들이 좋았고 찰스 쪽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일은 그리 평화롭게 흘러가지 않았다. 비극적인 일이 터지면서 한나와 찰스의 긴밀하던 관계는 단번에 깨질 위기를 맞고, 찰스는 아주 오랜 세월 가슴속에 응어리진 가족에 대한 신념과 자신만의 가치관, 현재 앞에 놓인 상황을 모두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찰스와 앨리스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소설은 1951년부터 2005년까지 반 세기가 넘는 세월을 넘나들며 한국인 이민자로 미국에 건너온 한나의 부모님인 종호와 순미를 비롯해 다양한 인물들과 그 가족들이 워싱턴, 한국, 파리 등 여러 곳에서 겪은 일들을 찬찬히 풀어 놓는다. 인종이 다른 사람이 결혼이라는 제도로 묶이려 할 때 겪어야 하는 일들, 아버지가 없는 가정과 그 아이들이 겪는 감정의 소용돌이, 벗어나지 못한 과거가 현재의 모든 일에 영향력을 발산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나며 “우리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어디까지, 진정 어느 범위까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가?”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오래 전 사회에서 용인 받지 못해 이민자 신세가 된 종호와 순미의 숨겨진 사연과 10년 만에 고향인 하동으로 향하는 가족 여행, 앨리스가 찰스와 처음 만났던 당시의 일들, 그리고 찰스와 한나의 복잡한 관계까지 모두 지극히 현실적이고 생생한 모습이 깊은 감동을 안겨준다.

<저자 소개>

소냐 정(Sonya Chung)은 워싱턴에서 태어나 콜롬비아 대학교와 워싱턴 대학교를 졸업했다. 「The Millions」, 「Bloom」에서 작가로 활동했고 2010년 소설 『Long for This World』를 발표했다. 푸쉬카트 상(Pushcart Prize) 후보에 오르고 찰스 존슨 소설 상(Charles Johnson Fiction Award)을 수상했다. 현재 뉴욕에 살면서 스킵모어 칼리지에서 글쓰기(소설)를 가르치고 있다.

제목 : CHEMISTRY

가제 : 케미스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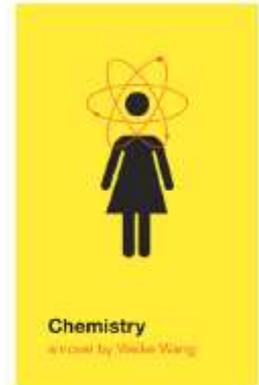
저자 : Weike Wang

출판사: Knopf

발행일: 2017년 5월 23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소설/ 문학



* **“영리하고, 유머러스하고, 감동적인 진짜 문학.” – 소설가 하진(Ha Jin)**

* **“사랑과 욕구, 열망을 신선한 스타일과 코믹한 열정, 세밀한 분석으로 들여다본 소설.” – 소설가 시그리드 누네즈(Sigrid Nunez)**

남자가 여자에게 프러포즈를 하며 다이아몬드 반지를 건넨다. 그런데 여자는 대뜸 내일 다시 물어보면 안 되겠냐고 한 발 물러서고, 이 로맨틱한 상황에 대한 느낌보다는 한 가지 분명한 정보가 떠오른다. 다이아몬드는 이제 더 이상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단단한 물질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운석이 지구와 부딪히면서 쪼개지는 경우에만 생긴다는 룬스달라이트라는 물질이 다이아몬드보다 무려 58 퍼센트나 더 단단하다는 사실이 이미 오래 전에 유명한 과학잡지에 실렸지 하는 생각이었다. 저명한 화학자가 되기 위해 5년째 박사학위를 밟고 있는 여자라 이런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연구결과랍시고 내놓은 논문이 딱 한 편뿐인 여자와 달리, 연구실 바로 옆자리 친구는 벌써 얼마나 많은 논문을 발표했는지 모른다. 똑같이 연구하고 공부해도 그 친구는 늘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어낼 줄 알았고, 책상도 항상 더 깔끔했다. 그러면서도 남들과 대화를 나눌 때 자기 연구 얘기만 하지도 않았다. 상대방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도와주는 여유도 있었다. “내가 저 만큼 성공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 논문 읽어봤냐는 얘기부터 할 텐데.” 여자는 부러움이 뒤엉킨 마음으로 되뇌지만 다 부질없는 생각이다. 이미 그 친구 외에도 연구실의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 자신이 한참 뒤떨어지고 있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었다. 자신만 빼고 다 잘나가는 것 같은 비참한 심정은 나날이 커져만 갔다. 청혼의 주인공이자 오랜 남자친구인 에릭도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고, 아무런 문제나 장애물 없이 쪽쪽 제 갈 길을 가고 있었다. 여자는 똑똑한 연구실 친구의 조언대로, 결혼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장단점 리스트를 쓰기 시작한다. 목록을 만들자마자 장점 항목은 채울 말이 가득 떠오른다. 에릭은 요리 실력도 뛰어나지만 시키면 군소리 없이 요리를 하는 자상한 남자였다. 몇 년 전부터 동거를 시작했지만 늘 한결같이 쓰레기를 버리고,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화분에 물을 주고, 강아지 산책도 다 도맡아서 해왔다. 어디 그뿐인가. 비가 잦은 보스턴에 조금이라도 좀 심하게 비가 내릴 때면 늘 여자를 연구소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같이 장을 보러 가면 계산 줄이 조금만 길거나 앞에 성가신 손님이 빨리 계산을 하지 않을 때마다 초조하고 신경질을 내는 여자와 달리 느긋하게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짜증내는 여자를 달랠

줄도 아는 남자였다. 장점 칸은 아무리 써도 계속 쓸 말이 떠오르는 반면, 단점 칸은 사실 하나도 들어갈 말이 없었다. 단점은 없다. 에릭이 너무 괜찮은 사람인 건 누구나, 그리고 누구보다 여자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 그의 청혼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 화학자로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지금처럼 너무 멀리 뒤흔어진 상태로 그와 결혼할 수는 없다는 자존심이였다.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없을 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해야 할 일도 산더미인 보스턴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밟고 있는 무명의 여자 주인공은 흠 잡을 데 없는 남자친구가 청혼을 한 중요한 시점에 개인적으로도 중대한 갈림길에 다다른다. 한때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있을 수도 없다고 확신할 만큼 사랑했고 열정을 불태웠던 화학자의 길이, 어쩌면 자신에게는 현실이 아닌 '가설'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중국인 이민자인 부모님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엄격한 목표를 딸에게도 여지 없이 적용했고, 학교 교수님들과 마찬가지로 한치의 실수나 부족함은 용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현실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자꾸만 밀리는 상태였다. 그쯤 되자, 주인공의 머릿속에는 전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의문이 떠오른다. "내가 진정 원하는 건 무엇인가?" 교과서나 논문에서는 결코 답을 찾을 수 없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나씩 방정식을 풀어간다. 2년간 이어지는 때로는 순수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세상살이 탐구는 그토록 사랑했던 화학 반응과 달리 분석할 수도 없고,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도 없고, 엄밀한 잣대로 평가를 할 수도 없다. 실패를 거듭하며 산산이 부서진 마음을 독자들에게 가만히 보여주면서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나선 주인공의 음성은 그런 상황과 달리 사뭇 경쾌하고 신선하다. 낯설지만 매력적인 과학의 세계와 갈 길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세상에서 앓을 곳을 찾으려는 열망, 가족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선사하는 희생의 마음을 고루 버무려 흥미롭게 그린 소설이다.

<저자 소개>

웨이크 왕(Weike Wang)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화학으로 석사학위를, 공중보건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보스턴 대학교에서 소설을 공부하고 예술석사로 졸업했다. 「Alaska Quarterly Review」, 「Glimmer Train」, 「The Journal」, 「Ploughshares」 등에 소설이 여러 차례 게재됐다.

제목 : BECAUSE I WAS LONELY

가제 : 외로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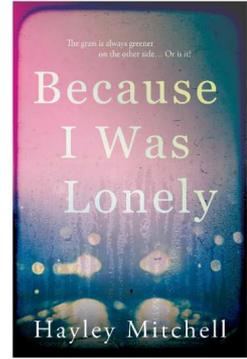
저자 : Hayley Mitchell

출판사: Red Door Publishing Ltd

발행일: 304 페이지

분량 : 2017년 3월

장르 : 소설/ 여성소설



* 소설가 **C.L.Taylor**, 줄리아 크로치(**Julia Crouch**), 제인 리델(**Jane Lythell**) 하이디퍼크스(**Heidi Perks**)의 팬들이 공감할 만한 스릴러와 여성소설의 조화, 탄탄한 줄거리의 데뷔소설.

* 태어난 직후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고독과 외로움, 최신 기술로 과거로 남아야 했던 관계가 현실로 되살아날 때 벌어지는 사건과 감정의 소용돌이

너무 사랑해서 절대 떨어져서 지낼 수 없는 남자와 결혼을 하고, 딸 하나, 아들 하나로 아이들까지 완벽한 조합으로 태어난 것까지는 레이첼이 바라고 꿈꾸던 인생 목표는 초과 달성된 것 같았다. 늘 마음속으로 그리던 완벽한 가족이 현실이 되었고 겉으로 보기에선 고민거리도, 힘들 일도 없어 보였지만 사실 레이첼은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다. 둘째 아이 제이미가 태어난 후, 밤에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였다. 잠들 때 외엔 하루 종일 칭얼대는 제이미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사회복지사의 도움까지 요청했지만, 친절한 전문가의 조언도 그리 큰 도움은 되지 않았다. 아이에게 잠을 자야만 한다는 걸 알려줘라, 밤에는 모유수유를 그만 뒤야 한다 등등 이론적인 이야기는 전혀 먹히지 않았다. 제이미는 입에 젖이 물릴 때까지 죽어라 울어대고, 남편 데이빗은 아침에 출근해야 한다는 이유로 시끄러운 울음소리를 피해 늘 서재에서 잠을 청했다.

데이빗은 침대에 쓰러져 고작 몇 시간 눈 붙인 레이첼에게 이미 뺨뺨 울어대는 제이미를 안겨주는 것으로 매일 아침을 시작했다. 정신 차릴 틈도 없이 가슴부터 꺼내 아이 입에 물리는 동안, 남편은 쓴살같이 준비를 마치고 출근했다. 첫째 딸 메이지까지 학교에 가고 나면, 레이첼은 또 다시 제이미와 단 둘이 남아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야 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속에서 울분이 터져 나와 때로는 아이가 2층에서 울어대는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손바닥으로 귀를 틀어막은 채 모른 척 할 때도 있었다. 그러다 아이가 조용해지면 혹시 잘못된 건 아닌가 공포에 떨며 아이 방문을 열어보는 일들이 술하게 반복됐다. 제발 단 하루만이라도, 남편이 아이를 다 봐줄 테니 잠을 자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하고 또 상상했지만 가능성은 제로였다. 데이빗이 제이미를 봐주겠다고 딱 한 번 나선 적이 있었는데, 한 시간 만에 진이 빠져 포기하고 말았다. 그 한 시간 동안도 끊임없이 레이첼의 도움을 요청해놓고는 두 번 다시 아이를 대신 봐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울어대는 아이 말고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에서 레이첼은 피곤에 절어 멍해진 정신으로 두 사람이 아이를 낳기 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떠올렸다. 그때 사랑했던 남자는 몸은 여전히 이

집에 있었지만 자신이 모든 감정과, 하룻동안 했던 실수와, 공감과 이해를 바라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 놓았던 사람은 이제 사라지고 없었다. 연애 시절 슬픈 영화를 보면서 눈물 흘리던 데이빗의 감정에 매력을 느꼈건만, 남의 슬픔에 공감하는 그의 능력은 허구의 이야기에만 적용되는 것 같았다. 100미터 밖에서도 누구나 알아보는 레이첼의 다크서클을 분명 보고서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 그때 본 그 남자, 사랑을 느낀 그 사람이 아니었다.

조강지처가 꿈이었던 레이첼이 두 아이를 낳고 절망과 걸잡을 수 없는 우울함 속에 서서히 빠져드는 동안, 그녀와 만만치 않은 혼란과 슬픔에 발목이 잡힌 남자가 있었다. 비극적인 사고 이후 평온했던 삶이 산산이 무너져버린 사람, 더 이상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확신에 절망하는 그는 한때 레이첼과 친구였던 애덤이었다. 둘 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 전에 알고 지낸 사이였지만 자연스럽게 뜸해졌고 많은 세월이 흘러, 각자의 이유로 깊은 외로움에 시달리던 두 사람은 뜻밖의 장소에서 서로와 마주친다. 페이스북, 온라인 공간이었다. 서로를 단번에 알아본 레이첼과 애덤은 서로 안부를 묻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이로 발전하지만, 반가운 옛 친구일 뿐 처음에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러나 마음 깊이 큰 상처를 안고 억누른 채 살아가던 두 사람에게 서로는 어쩌면 새로운 삶을 열게 해줄 희망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별 뜻 없이 시작된 관계는 아주 조금씩, 애매모호한 연애의 감정으로 발전한다.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했던 기대는 곧 서로를 향한 집착으로 변질되고, 위태롭게 지탱하던 일상에 커다란 금이 생기기 시작한다. 전에 없던 기술이 예전 같으면 기억 속에만 머물렀을 옛 인연과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게 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잊지 못한 과거의 연인과 몰래 연락을 하고 지낼까? 어디까지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한 부정행위이고, 어디까지가 순수한 인간관계일까? 우리는 남과 얼마나 가까워야 '가깝다'고 느낄까? 소설은 현 시대에 꼭 맞는 이런 질문을 던지며 레이첼과 애덤, 그리고 두 사람의 곁에 있는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겨낼 수 없는 슬픔과 죄책감, 빠져 나오기 힘든 절망에서 시작된 어둡고 내밀한 감정이 만들어낸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을 흡입력 있게 그린 소설이다.

<저자 소개>

헤일리 미첼(Hayley Mitchell)은 대학에서 법을 공부하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일과 관련된 작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

NON- FICTION

제목 : TRUMP PHENOMENON AND THE FUTURE OF US FOREIGN POLICY

가제 : 트럼프 현상과 미국 외교정책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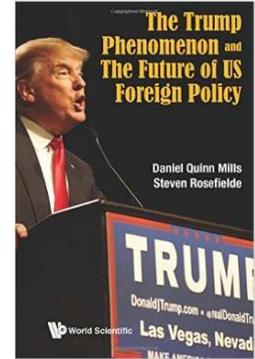
저자 : Daniel Quinn Mills and Steven Rosefielde

출판사: World Scientific Publishing

발행일: 2016년 9월 7일

분량 : 212 페이지

장르 : 정치



- * 대다수의 예상을 뒤엎고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의 핵심 외교전략과 미래 전망
- * 트럼프가 내건 '민주적 국가주의'의 의미와 현 시점에서의 의미

미국 대선후보로 나서서 막강한 민주당후보에도 쉽사리 뒤지지 않던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은 물론 세계대다수의 전망을 뒤집고 당당히 투표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당선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세계의 관심은 트럼프가 선거운동 내내 쏟아냈던 외교정책에 쏠렸다. 코미디언이 하는 말쯤으로 여기며 코웃음을 쳤던 그의 선언과 발언을 되돌려보고, 분석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새롭게 전망하느라 전세계가 분주하다. 그가 줄곧 주창했던 것은 미국의 외교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정책은 지난 수십년간 미국인들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해가 되었다는 것이 트럼프의 완고한 생각이다. 좋은 일자리를 수없이 빼앗기고, 실질적인 소득은 줄어드는데 세금은 늘어나고, 생활이 위태로워졌다는 분석에서 나온 결론이다. 이 책은 2차대전 이후 소위 '세계시민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삼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민주주의적 국가주의'로 바꾸어 먼저 미국부터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든 트럼프의 외교정책이 지닌 의미와 그 결과, 미국이 얻게 될 이득, 주변국들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전망한다.

트럼프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세계시민주의를 지키느라 평범한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희생을 해왔다고 믿는다. 그와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그보다 좋은 대안이 있는지, 그 대안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증명해보라고 주장하지만 일단 선거승리와 민심의 뜻은 트럼프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대안으로 내건 민주주의적 국가주의는 무엇이며, 어떤 결과를 낳을까? 미국 전체를 거대한 가족으로 여기고, 가족구성원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미국 내에서도 기득권을 이미 가진 사람들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그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국가주의이다. 이 원칙에 따라, 미국의 외교정책도 새로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저자는 이와 같은 신개념전략이 꼭 트럼프가 아니어도 미국을 이끄는 모든 리더들에게 새로운 동기를 불어넣을 수 있으며, 세밀하게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현 시점에 왜 그

러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지, 수십년간 당연하게 여긴 외교정책의 원칙에 어떤 점이 잘못됐으며 그것을 트럼프가 내건 새로운 방향에 따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두 저자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미국 정치와 국제 정세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목차>

1부. 미국의 성공적인 외교정책

- 1장. 우리 모두의 과제
- 2장. 국가 안보를 위한 최선의 길
- 3장. 오늘날 미국 정책의 핵심 요소
- 4장. 미국이 갖추어야 할 여섯 가지 특성
- 5장. 미국 정책의 기본 원칙
- 6장. 성공적인 정책, 가장 중요한 원칙
- 7장. 기회는 잡고 동맹에 얽히지 않으려면

2부. 현재의 위기

- 8장. 핵 위험성 증가
- 9장. 러시아: 축구장의 만취한 광팬?
- 10장. 미국과 이슬람 과격세력
- 11장. 중국과의 경쟁
- 12장. 독일의 지정학적 야망
- 13장. 정치인들은 미국과 미국을 대신할 강대국에 지금 무엇을 제시하고 있나

3부. 2차 대전 이후 세계 시민주의의 몰락

- 14장. 당나귀가 사자를 지휘하다: 현재 세계 시민주의의 현황
- 15장. 히틀러의 유산: 현대 정치의 혼란 (이하 생략, 총 18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대니얼 퀸 밀스(Daniel Quinn Mills)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고 30년 이상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리더십과 전략, 인적자원, 개인의 발전을 강의했다.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금융투자 컨설턴트로도 활동해 왔다. 저서로는 『Democracy and Its Elected Enemies』, 『Masters of Illusion: American Leadership in the Media Age』, 『Global Economic Turmoil and Public Good』 이 있다.

스티븐 로스필드(Steven Rosefielde)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 해군대학원 등 여러 대학에서도 강의를 해 왔다. 전문 분야는 소비에트 경제와 아시아 경제시스템으로, 러시아, 일본, 중국, 태국에서도 강연을 해 왔으며 스톡홀름 경제대학원, 핀란드 은행, 트렌토 대학교 등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제목 : THE LANGUAGE OF KINDNESS

가제 : 친절한 말 한마디

저자 : Christie Watson

출판사: Chatto & Windus

발행일: -

분량 : 약 80,000 words

장르 : 에세이/간호



- * 영국 **14개 출판사간의 치열한 경매가 진행된 코스타 어워드 수상작가의 논픽션 신작**
- * 미국(**Random House US**), 독일(수십만 달러 규모), 스페인, 스웨덴, 이탈리아, 폴란드, 브라질, 네덜란드 판권 계약 체결, 덴마크, 포르투갈, 프랑스, 노르웨이와도 논의 중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어느 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아 들면 누구나 한없이 작은 존재가 된다. 돈도, 권력도, 지금까지 누리고 얻고 애쓰고 즐기던 모든 것이 무너진 건강 앞에서는 다 부질없는 먼지로 바뀐다. 2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면서 그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온 저자는,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누구도 줄 수 없는 희망을 건네는 사람이 바로 간호사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정작 자신의 아버지가 폐암으로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야만 했을 때,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약물 그 어느 것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똑똑한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모두 떠난 병실에 남아 생명의 존엄성과 평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바로 간호사다. 저자는 간호사라는 직업이 그저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직업 중 하나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환자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부대끼며 인류애와 삶의 깊은 철학을 전하고 수호하는 역할을 해내고 있는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한다.

한 인간이 가장 약해진 순간, 생사를 오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곁에서 지켜본다는 건 어쩌면 일종의 특권인지도 모른다. 의사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로 고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환자의 끝없는 불안과 상실감이 그 반대쪽에 놓여 있을 때 간호사는 환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보호자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까지 돌봐주고, 공감과 위로를 전하며 그 간극을 메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병원이 일정기간 집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다채로운 모습을 전한다. 간호사가 숨을 제대로 못 쉬는 환자의 호흡기를 조절하는 중환자실부터 새파란 녹색 수술용 천이 둘러진 환자의 가슴팍에 지곳이 손가락을 눌러보며 심장의 미세한 움직임을 파악하는 수술실과, 심박에서 위험한 상태가 감지되지 않는지 모니터로 체내 산소 상태를 점검하고 동시에 환자의 눈을 들여다보며 상태를 체크하는 일반 병동으로, 이어 아파서 울어대는 아기 환자에게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등을 토닥여주기도 하는 소아 병동까지, 저자는 독자들을 이끌고 병원 구석구석을 보여준다. 눈 앞에서 펼쳐지는 온갖 안타까운 상황에서 간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저자는 간호 업무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부풀려

진 오해를 바로 잡는다. 병원 약국에서 하루에 수천 가지가 넘는 처방이 내려와 엄청난 수의 환자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알코올과 약물에 중독된 환자들로 북적거리는 병동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대형 병원 안에서 분초를 다투며 이루어지는 다양한 치료 현장의 모습도 충분히 흥미롭지만, 우리가 가장 필요한 순간 손길을 내민 간호사들의 전문적인 수준이나 가치를 평소에 얼마나 무시하고 등한시해왔는지도 움찔하며 깨닫게 되는 순간들과도 마주하게 된다.

고된 노동과 누구보다 깊은 직업정신을 가지고도 대체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간호사들의 숨은 노력과 뜻밖의 소중한 역할을 저자의 유려한 글로 가감 없이 진솔하게 접할 수 있다.

<목차>

머리말

1장. 소아 특수병동

2장. 소아과병동

3장. 신생아 집중치료실

4장. 사고, 그리고 응급상황

5장. 입원 병동

6장. 수술실

7장. 암 병동

8장. 정신과 병동

9장. 노인 치료

10장. 심폐소생

11장. 영안실

<저자 소개>

크리스티 왓슨(Christie Watson)은 20여 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소설가로도 활동해 왔다. 이스트앵글리아 대학교에서 글쓰기로 예술석사를 취득하고, 「Wasafiri」, 「Mslexia」, 「Index on Censorship」, 「The Guardian」, 「The Telegraph」 등에 단편과 글을 게재해 왔다. 데뷔소설 『TINY SUNBIRDS FAR AWAY』로 2011년 코스타 어워드(Costa Award)와 웨이버튼 굿 리드 상(Waverton Good Read Award)을 수상했다. 두 번째 소설 『WHERE WOMEN ARE KINGS』도 출간 후 평단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제목 : DARWIN'S FIRST THEORY

가제 : 다윈의 첫 번째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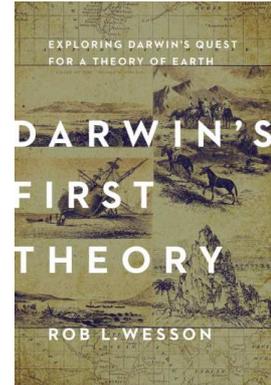
저자 : Rob Wesson

출판사: Pegasus Books

발행일: 2017년 4월 11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과학



- * 진화론의 아버지, 찰스 다윈의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맨 처음부터 총 정리한 책
- * 생물학자가 아닌 '지질학자'로 토지 조사에 나선 학자가 인류의 기원을 밝힌 이론을 세우기까지 증거를 모으고, 분석하고, 연구한 모든 과정을 추적한 전기이자 과학서

진화론 하면 동시에 떠오르는 이름인 찰스 다윈은 그 이론의 내용을 세세히 모르는 사람들도 누구나 알 만큼 위대한 과학자로 꼽힌다. 무엇보다 다윈은 인간을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맨 처음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파헤치고 설명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런데 다윈이 이 위대한 성과를 거둔 시작은 지질 조사를 위해 떠난 항해였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영국이 갓 새로운 국가로 탄생한 칠레와의 해상무역을 늘이기 위해 낯선 나라의 항구와 해안의 특징, 주변 지형을 조사하라고 보낸 선발대에 비공식적인 지질학자로 끼어 있던 사람이 바로 찰스 다윈이었다. 그가 들여다볼 대상은 땅과 지형이지 식물과 동물이 아니었다. 이 뜻밖의 출발과 타고난 관찰력, 분석 능력에서 판 구조론이 먼저 나오고, 그것이 진화론이라는 거대한 이론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40년 넘게 일하면서 평생을 지질학자로 살아온 저자는 어릴 때 이 직업에 매혹된 특별한 경험도 진화생물학자로만 알았던 다윈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야 깨달았다고 전한다. 그리고 해저가 융기하여 지표면에 높낮이가 형성된 과정, 어디에서 나온 어떤 힘이 땅을 치솟게 만들었는지 관찰하고 지구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한 다윈의 연구가 언뜻 보기에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진화론으로 발전하게 된 과정을 이 책에서 설명한다.

1835년 2월, 로버트 피츠로이 선장이 이끄는 HMS 비글 호가 칠레 남부 발디비아 항에 닿을 내렸다. 선원들은 이미 10일째 해안가 근처에서 해군성이 미리 정해진 여러 가지 조사 항목을 열심히 기록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들이 수심을 측정하고, 해안가 지도를 그리고, 부두의 분위기와 주변 선박들의 상황 등을 꼼꼼히 조사하는 동안 다윈은 열대우림이 빼곡한 숲을 거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재빨리 시계를 꺼내 들고 측정한 결과 2분가량 지속됐고 다윈이 서 있던 곳에서는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았지만 해안가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느낄 만큼 상당한 진동이었다. 그로부터 175년이 넘게 지난 2010년 2월, 저자는 CNN을 통해 바로 똑같은 지점에서 또 다시 지진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한다. 그리고 다윈과 피츠로이 선장이 성실하게 기록한 당시의 상황과 과학적인 분석에 담긴 가치를 제대로 인지한다. 이들이 남긴 기록은 19

세기에 지구 대륙이 어떻게 상승했고 안데스 산맥과 같은 거대한 지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또 이를 설명하는 핵심 증거가 된 것은 물론, 이후 다윈이 항해를 마치기까지 5년간 집중적으로 진행한 연구로 진화론의 바탕을 형성하게 된다. 저자는 다윈이 항해 조사를 통해 안데스와 우루과이,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스코틀랜드, 웨일즈 지역을 샅샅이 파헤치고 화석과 빙하의 흔적을 찾아 연구한 것이 그의 남다른 지성과 관찰력과 더해져 지구와 인류의 근원을 통찰하게 된 과정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고도의 개념, 셀 수 없이 긴 시간을 거치면서 서서히 축적된 지구와 생명체의 변화를 폭넓은 시각으로 관찰했던 다윈의 시선을 따라가고 지질학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진화를 분석한 흥미로운 책이다.

<목차>

머리말. 이상한 집착

1부. 다윈의 업무

- 1장. 부관 겸 딱정벌레 수집가
- 2장. 전문가를 대동한 현장 조사: 당시 지리학의 상황
- 3장. 준비: 모험이 시작되다
- 4장. 항해 첫 해
- 5장. 파타고니아: 자연에서 펼쳐진 위대한 연구
- 6장. 마리아 그레이엄, 고도가 높아진 이유를 둘러싼 논쟁
- 7장. 다윈과 지진
- 8장. 안데스 산맥의 상승
- 9장. 산호초, 그리고 가라앉은 해저

2부. 다윈 이론의 등장

- 10장. 믿음이 위안을 주고, 사실이 설득력을 더하다
- 11장. 종합된 이론
- 12장. 이론의 확장: 글렌 로이에서 발견한 단구열

3부. 다윈의 발자취를 추적하다

- 13장. 융기에서 고도 상승으로
 - 14장. 자연 선택부터 판 구조론까지
- (이하 생략, 총 18장과 지도/그림 목록으로 구성)

<저자 소개>

롭 웨슨(Rob Wesson)은 MIT에서 지구과학을 공부하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지구물리학으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쳤다. 40여 년간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지진을 연구하고, 현재 지질조사국 명예연구원으로 국립과학재단이 지원하는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제목: RECLAIMING FEMINISM

가제: 페미니즘 다시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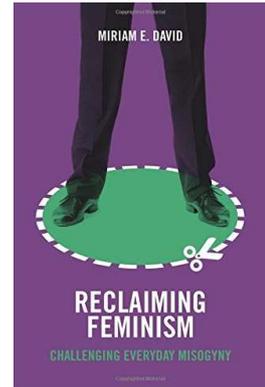
저자: Miriam David

출판사: Policy Press

발행일: 2016년 6월 15일

분량: 256 페이지

장르: 사회



- * “영국의 페미니즘 역사와 사회학적 의미를 아주 읽기 쉬운 유익한 정보로 제공한다. 학생들은 물론 과거의 값진 지혜를 잘 아는 오랜 페미니스트들 모두가 좋아할 책.” – 매사추세츠 대학교 새런 램
- * “페미니스트의 의견이 전문적인 교육환경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저자의 메시지는 오늘날 중요한 의미가 있다.” –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린다 스톤

정치는 물론 공공 생활 전반 어디서든 여성이 들어서지 못하는 분야가 거의 사라진 것은 사실이다. 여성과 남성의 성적, 사회적 관계에서도 여성의 지위가 확고히 자리잡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여성의 입지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좁았던 50여 년 전보다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더 언론이며 정책 토론이며 일반 시민들의 대화주제에 훨씬 자주 등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여성이 여전히 남성과는 ‘다른 존재’로 여겨지는 풍토가 특히 권력에 있어서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세계 경제가 뜨거운 경쟁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소셜 미디어가 등장하자 그 경쟁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스며들어 의외의 부작용을 낳았다. 바로 가부장적인 사고방식과 성차별, 여성 혐오가 예전에 없던 매체를 통해 당당히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이다. 21세기에 일어난 큰 변화는 인류 전체에 큰 기회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장애물도 등장했다. 페미니즘이 부활하게 된 이유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저자는 여성 평등과 여성에 대한 존중, 공정성, 사회정의와 같은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페미니즘이 여성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고, 여성 혐오가 나날이 증대하는 현 상황에서도 여성들이 페미니즘에서 얻을 수 있는 힘은 무엇인지 보여준다. 지난 50년간 이어진 페미니즘 운동의 흐름과 학계의 연구 동향을 총 정리하면서, 과거와는 또 다른 이유에서 페미니즘을 되살려야만 하는 이유를 현실적으로 설명한다.

페미니즘이 특별한 의식이나 목적을 가진 일부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생각이 아닌, 여성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고 동참해야 하는 견해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현대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교육과 경제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변화에서 여성의 지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그러나 페미니즘을 편협한 선입견으로 대하는 분위기부터 사라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보다 교육계에서

페미니즘이 공통적인 지식의 하나로 젊은 세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페미니스트들은 그 목표를 위해 숭한 시도를 해 왔지만 여성혐오와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의해 계속 목살당할 수밖에 없었다. 저자는 페미니즘을 여성만을 위하고 챙기려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성적, 사회적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서로 협력하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해해야 하고 그래야 아직도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여성혐오나 성차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여성의 사회적인 삶 전반에서 마주치는 기회와 다양한 장애물을 페미니즘과 교육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여성만이 아닌 남성 전체를 포괄하는 사회적 변화를 위해 고등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세부적으로 조언하는 의미 있는 책이다.

<목차>

페미니즘의 흐름 정리

- 1장. 평생 학자로 살아온 사람이 생각하는 페미니스트
- 2장. 페미니즘의 변화
- 3장. 페미니즘의 선구자
- 4장. 성별, 그리고 세대
- 5장. 페미니스트의 육성
- 6장. 페미니스트의 부활
- 7장. 대학의 페미니스트
- 8장. 페미니스트의 운

<저자 소개>

미리엄 E. 데이빗(Miriam E. David)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교육연구소에서 사회학 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교육과 가족, 페미니즘, 사회정책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이어왔다. 저서로는 『Feminism, Gender and Universities: Politics, Passion and Pedagogies』 등이 있다.

제목 : WHERE AM I GOING AND CAN I HAVE A MAP?

가제 : 여긴 어디? 커리어 관리에도 지도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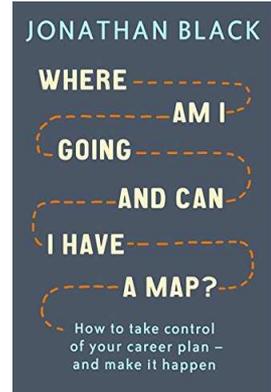
저자 : Jonathan Black

출판사: Robinson

발행일: 2017년 3월 15일

분량 : 176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인턴 자리 얻기가 정규직만큼 치열하고 고학력 실업자들이 증가하는 시대, 특별한 경력이 없는 사회 초년생들이 꼭 유념해야 할 탄탄한 커리어 쌓기 전략**

*** 조금 멀리 내다보고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장기적인 직업 계획과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계획**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대학 혹은 대학원 졸업생들은 사상 유례 없는 취업난에 시달리는 중이라는 기사가 연일 뉴스와 신문에 등장한다. 구세대들은 젊은이들이 편한 일만 찾으려 한다고 편잔을 주고, 그 고통의 한가운데에 있는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 들인 시간과 돈, 에너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과 8년 넘게 직업상담을 해온 저자는, 이 갈등의 원인을 좀 더 현실적인 곳에서 찾아보자고 이 책에서 제안한다. 지금 당장 어디든 입사만 하면 일단 고민이 해결될까? 너도나도 원서를 넣는 곳에 ‘일단 넣고 보자’는 마음으로 적당히 완성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밀어 넣는 것은 정말 손해 보는 일이 아닐까? 저자는 바로 현 시점에 사회 초년생이 되려는 사람들이 꼭 유념해야 할 중요한 맥락을 짚어준다. 이해하기도 힘든 자기 분석이나 골치 아픈 이론을 적용하는 대신 가장 단순하고 정확한 접근법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바로 잡아가는 원칙을 설명한다.

“일단 두 군데 합격은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다른 분야예요. 그런데 그 분야에 경력은 하나도 없고, 지식도 전혀 없거든요. 그럼 전 어디에 지원을 해야 옳은 걸까요?” “원서를 열 군데 정도 넣어 봤는데, 거의 다른 분야예요. 사실 왜 거기다 원서를 넣었는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으니까 막 넣긴 했는데, 너무 지쳐요.” 저자는 매년 졸업 시즌이면 이렇게 호소하는 예비 졸업생들을 솔하게 만난다고 이야기한다. 젊은이들의 걱정은 전체적으로 한결 같고, 목표도 비슷하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무슨 일을 하고 싶고,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자기 생각과 마음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대학에 와서 공부를 마칠 때까지는 너무 확실한 대로가 뺨 뚫려 있어서 길 잃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초중고교를 차례로 졸업하고, 최대한 좋은 성적을 받고 수능을 잘 치르고 관찮은 대학에 입학해서 학점 잘 받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런데 그 다음은? 이 시점에서 젊은이들은 갑자기 끊어진 길과 마주한다. 여기서부터는 알아서 찾아가야 하는데, 평생 한 번도 길을 찾아본 적이 없어서 어리둥절

하고 지도도 볼 줄 모른다. 결국 여기저기 이리 기웃, 저리 기웃거리는 혼란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뭐라도 걸리길 운에 맡겨야 할까? 구직 사이트를 펼쳐놓고 아무데나 넣으면서?

저자는 이 혼란을 잠재우는 방법은 ‘지도 읽는 법’부터 배우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길이 어디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 혹은 도구는 무엇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침착하게 현실성을 잃지 않고 고민하다 보면 미로 같던 지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취업 스트레스와 조금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남들이 일으킨 혼란에도 휩쓸리지 않고 내 갈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는 매우 유익한 지침서다.

<목차>

1부. 공중에서 내려다보자 – 이게 다 무슨 일인가?

- 1만 피트 상공에서 내려다본 지도
- ‘정답’은 없다
- 경쟁이 아니다
- 커리어는 항해와 같다 (이하 생략, 총 14장으로 구성)

2부. 현실성, 그런데 월요일 아침마다 뭘 해야 할까?

- 맨 밑바닥에서부터
- 직업을 찾는 방법
-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 틈을 잘 봐야 한다 (이하 생략, 총 27장으로 구성)

3부. 길 따라 잘 찾아가려면

- 인내
-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 무의식적인 마음 바로잡기
- 확실해? 그걸 어떻게 알아?
- 미래를 예단하지 마라 (이하 생략, 총 18장으로 구성)

더 읽을거리

<저자 소개>

조너선 블랙(Jonathan Black)은 지난 8년간 옥스포드 대학교 경력개발부 책임자를 맡고 있다. 과거 경영 컨설턴트와 전문 출판업자, 스타트업 회사 대표, 재무 관리자, 우주선 엔지니어, 컴퓨터 판매원 등 영국, 유럽 각국, 미국에서 다양한 직업을 거쳤다. 현재는 학생들과 일대일 직업상담을 하고 국제 컨퍼런스 와 라디오, TV 등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제목 : RULES FOR REVOLUTIONARIES

가제 : 혁명의 법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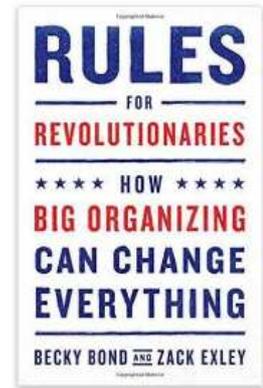
저자 : Becky Bond and Zack Exley

출판사: Chelsea Green Publishing

발행일: 2016년 11월 18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정치/사회



- * “이 시대 가장 성공한 조직 관리자 두 사람이, 역사를 바꾸기 위해 수십 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며 활용한 창의적인 전략과 기술을 공유한다.” – 스탠포드 대학교 정치경제학 부교수, 데이빗 브룩먼
- * “분야와 상관없이, 앞으로 온 세상을 뒤흔들 큰 캠페인을 조직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350.org 공동 창립자 빌 맥키벤

미국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수의 민중이 모여 혁명을 일으킨 일들이 많다. 반식민지 운동부터 인권, 여성의 참정권, 성 소수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까지 다양한 주제로 수십만, 수백만 명이 참여한 전국적인 운동이 자주 펼쳐졌다. 그러나 20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그러한 대규모 운동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사회운동들로 대체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정치계가 더욱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것도 그러한 변화를 이끌었지만, 노동계급과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아픈 곳을 강하게 자극하는 방식의 정치가 주를 이루고 민주, 보수 할 것 없이 정당에 최신 기술로 무장한 엘리트들이 영입되면서 선거운동부터 정치적인 움직임이 소규모로, 혹은 소수의 거대 기업과 기관의 손에서 모두 이루어진 것이 큰 이유였다. 그러나 올해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선 버니 샌더스의 선거운동은 거대 운동의 막강한 힘과 필요성을 모두에게 상기시키며 기존의 정치 캠페인과는 사뭇 다른 기획과 전략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20년 이상 미국 정치계에서 개혁을 선도해온 컨설턴트인 이 책의 두 저자는 버니 샌더스의 캠페인 선임 고문을 맡아 이 새로운 사회 운동의 큰 틀을 마련한 장본인이다. 이들은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운동이나 2011년 월 스트리트에서 상위 1%의 특권에 반대하며 대대적으로 벌어진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은 물론 그보다 훨씬 전인 2003년 조지 부시 대통령의 퇴진 운동에서 이미 거대 운동의 부활 조짐이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거대 운동이고, 소규모 운동과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왜 필요할까? 조직적인 운동의 기획과 운영, 관리 전문가인 두 저자가 그 기본적인 원리와 향후 전망을 이 책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두 저자는 수백만 명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거대 운동’이라 칭한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의 핵심 구성원이자 조직 전체의 리더는 바로 사회 곳곳에서 평범하게 살던 자원봉사자이다. 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 집에서 살림을 하던 주부들, 직장인과 노동자들, 심지어 감옥에서 갓 출소한 사람들까지 누구도 예외는 없다. 누군가 나서서 이들을 교육하거나 가르치는 단계도 필요치 않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열망으로 모두가 자진해서 캠페인에 참여하고, 누가 강요하거나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몫을 하면서 각자의 인생에서 깨달은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기꺼이 공유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리고 수백만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대장 노릇을 하려는 사람과 숨죽여 시키는 대로만 하려는 사람들이 뒤엉킨 비영리 집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가능할까? 두 저자는 실제 선거운동에서 이러한 우려를 현실로 바꿀 수 있었던 기본 원칙을 22가지로 정리하여 차례로 설명한다. 정치운동은 물론, 분야와 상관없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큰 움직임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목차>

거대 조직이 왜 필요할까

규칙

1. 먼저 부탁하지 않으면 혁신도 이를 수 없다
2. 혁신을 힘들이지 않고 이를 수는 없다
3. 혁신은 직원들이 알아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4. 핵심 메시지로 인종차별과 맞서야 한다
5. 전화기를 들어라!
6. 일은 분산하고, 계획은 한 곳으로 집중하라
7. 혁명에는 돈이 필요하다 - 소규모 기부의 중요성
8. 유세하라!
9. 성가신 문제와 맞서라
10. 암호를 알려줘라
11. 엄청난 존재가 거대한 적이 되도록 내버려두지 마라
12. 우수경영법의 기본을 배워라

(이하 생략 - 총 22장과 맺음말로 구성)

<저자 소개>

베키 본드(Becky Bond)는 올해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버니 샌더스의 선거운동에서 선임 고문을 맡아 미국 전역에서 실시된 캠페인의 기틀을 마련했다. 정치 자문단체 'CREDO SuperPAC'의 공동 창립자이자 정치부 책임자로 10년 넘게 일하면서 조직관리, 정치, 기술 분야의 다양한 혁신을 이끌었다.

잭 엑슬리(Zack Exley) 역시 버니 샌더스 후보의 올해 선거운동에서 선임 고문을 맡고 전국 캠페인 계획을 수립했다. 2003년 이라크전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최초로 시작한 MoveOn.org를 만들고, 과거 존 케리를 도와 온라인 기금운동을 실시하여 1억 달러의 모금액을 거둬들였다. 전 세계 NGO와 각종 캠페인, 민간업체의 컨설턴트로 일해 왔다.